

1983년 연길의 여름 이야기 다시 찾아온다

영화 《김철》 촬영 종료



▲ 김성봉 감독

어린이 동기부여를 소재로 한 영화 《김철》의 촬영 종료식이 25일 연길시 백산호텔에서 열렸다. 창작인원,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2년부터 씨나리오가 점차 영화로 변화되는 전 과정을 돌아보았다.

영화 《김철》은 연길 사람 김성봉이 감독을 맡은 첫 작품이다. 영화는 2022년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갔고 2024년 7월 14일에 촬영을 시작했으며 40여일에 걸쳐 촬영을 마무리했다.

영화 《김철》은 고향, 전원, 동년, 성장, 가정, 교육을 둘러싸고 1983년 연길의 그 여름에 발생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영화 《김철》은 김성봉 감독의 어린 시절 기억에서 비롯됐고 연길시에서 촬영했다. 도시에서 온 상민은 물이 허약하고 잔병도 많았지만 김철은 그와 정반대였다. 김철은 늘 상민이를 데리고 자연을 즐기고 놀이도 하며 서로 친해졌다. 다만 김철에게 부족한 것을 마침 상민이가 가지고 있었다. 김철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그를 떠났고 아버지는 허송세월을 하며 김철에게 무관심했다. 바보 아버지 때문에 김철 역시 '작은 바보'라는 게 당시 마을 사

람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되었다. 상민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김철 어머니의 행방을 알게 되고 집에 있는 사진첩에서도 김철 어머니의 사진을 찾게 된다. 상민은 김철을 데리고 그의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두 아이는 차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먼길을 떠난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김철의 어머니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고 김철은 여전히 '엄마가 없는' 아이로 남게 된다. 방향간 마을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상민의 지지와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김철은 처음으로 씨름대회에 참가했다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온 마을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된다.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두 아이는 마을 밖에서 이웃 마을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김철은 상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반격하면서 마음속의 분노와 내키지 않는 감정을 마구 쏟아낸다... 수년 뒤 상민은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는 여태 친구가 많았지만 김철에게는 친구가 하나뿐이었다."고 말한다.

이 영화의 투자자인 류언문(刘彦文)도 연변 출신으로 현재 하북동방학원 리사장으로 있다. 고향에 대한 애절한 마음, 끈끈한 팀워크와 온 힘을 다 바친 노력, 연길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영화 《김철》은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류언문은 향후에도 연변의 향토에 초점을 맞추고 고향의 변천을 반영한 시리즈 작품을 계속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창작팀은 수십년간 영화제작에 종사해온 전문 영화인으로 무여졌다. 또한 영화를 위해 특별히 조선족 마을 정경까지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이는 일반 영화제작에서 흔치 않은

일로서 영화의 질감에 견고한 토대를 제공했다.

이와 부분 제작 관련 사업인원과 스태프들은 하북동방학원의 재학생들이 맡았는데 이번 촬영은 대학생들에게도 소중한 실천경험과 잊지 못할 촬영경험을 남겨주었다.

한편, 이번 영화의 감독인 김성봉은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기업가로서 영화텔레비전방송, 무역, 물류 등 여러 업종을 아우르고 있다. 김성봉 감독은 현재 북경정원가작영화업유한회사와 정원특도(북경)영상문화유한회사 등 3개 기업의 법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4개 기업의 고위층 관리직을 맡고 있다. 그는 영화 《팔백》, 《은하보습반》, 《금강전》, 《혈전 장진호》 등 영화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 김파기자



제 2 회 장백산수석예술전 연변도서관서 개막

장백산물 '열독 신시대 서향 윤연변' 전민독서 시범보급 계열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미래중화 경주전국 75주년' 주제 장백산수석예술전이 29일 오전 연변도서관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수석예술전은 연변도서관과 연변조선족자치주장백산수석예술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연변수석문화협

회, 장백산수석자치현암록강수석협회, 연변인민출판사 《문화시대》잡지사에서 주관했으며 연변환경예술조형연구소에서 협조했다.

개막식에서 연변도서관 관장 김혁이 개막사를 하고 주장백산수석예술연구원 원장 강종호,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김영진, 암록강수석협회 회장 한창학, 연변수석문화협회 회장 최철

산, 《문화시대》잡지사 주필 림은화 등이 축사를 하였다.

이번 장백산수석예술전은 민족전통문화를 선양하고 수석애호가들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사람들의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인식을 한층 제고시키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 연변수석문화협회와 장백조선

족자치현암록강수석협회의 김경중, 최철산, 최홍련, 박동일, 김영희, 허성일, 한창학, 최준길, 최영근 등 9명 탐석가들이 출품한 50여점의 수석 작품들이 수석전에 선보였다.

료해에 따르면 장백산수석예술전은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근 2주 동안 연변도서관 1층 대청에서 열린다.

/ 김태국기자

전망대 승전 의욕 해이해진 석가장공부에 승점을 챙겨라!



▲ 중경동량릉과 연변룡정팀간 경기 한 장면

9월 1일 19시 30분, 9라운드 무승의 늪에 깊숙이 빠진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이 석가장시 유동국제체육중심에서 석가장공부팀(이하 '석가장팀')과 2024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21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두 팀의 갑급리그 상호 전적은 1승 1무 1패이지만 성적이나 순위를 보면 8승 6무 6패로 30점을 기록한 석가장팀이 실력상 한수 우라고 봐야 할 것이다. 골 득실수에 서만 봐도 석가장은 22득 21실이지만 연변은 21득 36실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석가장팀은 지난해에 비해 너무 일찍 슈퍼진출권에서 밀려났지만 팀의 전체적인 실력을 보면 연변팀으로서는 쉽게 볼 팀이 아니다. 우선 석가장팀의 다양한 전술 변화이다. 비록 4월 13일 연길에 와서 연변팀에 0:1로 패했지만 시즌 초반인 그대에 비해 상대 선수들의 실력과 전술 체계가 들여다보이는 현상은 대답하고도 가까운 변화가 필요할 때다.

최근 5라운드 석가장팀의 선발진영 변화를 살펴보면 무석오구와는 4-2-3-1, 광주팀과는 5-4-1, 강서려산과는 4-3-2-1, 청도홍사와는 4-4-2, 광서평가하요와는 3-5-1-1로 한번도 같은 진영을 구사하지 않았다. 석가장팀은 다양한 변화와 전술 체계로 부동한 팀들을 상대한다는 말이다.

올 시즌 석가장팀은 기복이 비교적 큰 팀중의 하나이다. 5월에 3전 3승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면 6월에는 4전 1무 3패의 라제점수

를, 7, 8월에 5전 2승 2무 1패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어 갈피를 잡기 어려운 팀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고 석가장팀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대단한 팀은 아니다. 실례로 지난 제 20라운드 대 광서평가하요 경기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광서의 주력공격수인 로터리그가 30분 만에 레드카드로 퇴장당하였지만 석가장은 각종 수처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4장의 옐로카드 대가까지 치르면서도 최종 0:0으로 비겼는데 공격력과 조직 방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갑급 보존을 기본상 실현하고 슈퍼리그 진출을 물 건너간 상대라 선수들의 투지가 다소 해이해졌다는 말이다.

반대로 연변팀은 강대한 중경동량릉과 탄탄한 수비를 내세워 맞장을 뒀고 슛(28:2)이나 코너킥(10:1), 레드카드(0:2) 면에서 다 뒤졌지만 최종 1:1로 비었다는 점이다. 이악스런 연변팀의 풍격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참고로 지난 6월 2일 석가장팀은 원정에서 중경동량릉에 1:2 패를 당하였다.

런속 이어지는 원정경기에서 체력 소모가 많고 부상자로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감독과 선수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중경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대담하고도 빈틈없는 전술 체계를 보강하고 연변 전통의 완강한 축구정신으로 승전 의욕이 다소 해이해진 석가장팀을 압박한다면 꼭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김태국기자

안도현 장백산송이문화축제 개최



25일, '송이문화 알아가고 안도 풍정 만끽하다'를 주제로 한 2024년 안도장백산송이문화축제가 안도현 석문진 무학촌에서 열렸다.

이번 송이문화축제는 명품 송이 전시, 송이요리 시식,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었으며 축제 현장에서는 관광객들이 새벽에 채취한 신선한 산나물과 송이장, 송이커피 등 송이를 원재료로 만든 고급 식품을 맛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송이요리 시식은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주최측은 송이를 주제로 정성껏 준비한 요리들을 선보였는데 버터에 구운 송이, 송이계란찜, 송이토종닭탕, 송이흑돼지고기북을 등 지역 특색이 담긴 12가지 요리를 준비했다.

장춘에서 온 관광객 장씨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현지 특색 음식도

맛보고 송이문화도 알게 되어 정말 헛되지 않은 여행이었다."라고 전했다.

'장백산 아래 제 1현'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있는 안도현은 생태환경이 좋고 송이의 주요 산지이기도 하다. 송이는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귀하고 값진 식용버섯으로 '버섯의 왕'으로 불린다. 오염되지 않은 산지의 소나무 숲과 침엽수, 활엽수가 섞여있는 숲에서만 자라는 까다로운 송이버섯은 최적의 환경을 품고 있는 안도현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되었다.

이번 안도장백산송이문화축제는 안도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독특한 문화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기업, 상인, 관광객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다방면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안도현의 인지도와 명성을 끌어올리는데 취지를 두고 기획되었다.

/ 연변일보

2024년 전국교육계통 선진집단 및 선진개인 표창, 조선족 2명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과 제 40 번째 교사절을 경축하고 교육가 정신을 적극 선양하며 전사회적으로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질은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자신자강, 분발정진하며 강국건

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위해 더 큰 공헌을 하도록 광범한 교사와 교육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추천단위의 층층의 추천과 전국교육계통 선진표창사업지도소조의 심사 선정을 거쳐 전국교육계통 선진집단 591

개, 전국모범교사 717명, 전국우수교사 895명, 전국교육계통 선진종사자 80명과 전국우수교육종사자 99명을 표창하게 된다. 공시 기간은 2024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교육부 사이트에 발표된 공시 명단에 따르면 연변대학 성현무(조선족), 신강위글자치구 파산현 쌍진중학교 백우(조선족)가 전국모범교사 명단에 올랐다.

/ 인민넷

'9.3'맞이 제 1 회 '풍무컵' 연변 민속장기 초청경기 연길서



2024년 '9.3'맞이 제 1 회 '풍무컵' 연변 민속장기 초청경기가 8월 24일 연길에서 있었다.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을 취지로 펼쳐진 이번 경기는 연변조선족자치주민속장기협회에서 주최하고 연길시민속장기협회 신흥분회에서 주관했으며 연길시풍무음식유한회사에서 협찬했다.

연길시민속장기협회 신흥분회 회장 지성일은 민속장기를 더욱 널리 보급하고 더욱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이번 경기대회를 조직했다면서 참가자들 중에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장기고수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

에는 맹인선수 리현철도 참가해 맹인장기를 두었다.

이번 경기에는 연길, 안도, 도문, 화룡, 훈춘 등 연변 각지에서 모여온 48명의 장기고수들이 참가했는데 시합은 8라운드 적분제 순환경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치열한 각축전을 거쳐 연길시민속장기협회 신흥분회의 김일이 우승을 따내고 김창호, 리세민, 조청룡, 심명섭, 조홍호, 한영찬, 리근 등 선수들이 2등부터 8등까지 차지했다.

/ 안상근기자, 최승진

